

# 현대불교

고개를 끄덕여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거래 일체 10%, 최고 1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2-733-4000

**국민은행**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명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1월 26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52호

내가 사골에서 자라던 대역섯 살 때 일로 기억된다. 이웃집에 내 프래에 아이가 있어 곧잘 어울려 놀았다. 그 부모는 외지에서 이사해서 이집 저집 헤드렛일을 해주면서 연명해 가는 집 아이였다. 나는 어른들이 그 집을 무시하고 하찮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잘 놀다가도 덤달아 그 아이를 놀리거나 때리기까지 했다.

어느날 논두렁에서 놀다가 그 애를 공연히 때려서 코피를 내게 해서 그에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부모도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중학교부터 서울로 유학을 왔고 마침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남의 업수업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등인가도 알았다. 그로부터 이

## “사찰환경 적극보호” 3당 후보 한 목소리

### 현대불교 '대선후보 불교계공약' 설문

**관련기사 21면**

사찰주변의 환경 보호와 편양적 종교정책 배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불교계를 향해 내놓는 공통적인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또 후보들은 폐사지 복원, 불교문화의 보호 육성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고취, 문화정책의 고안등을 내세우며 '불심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질문한 대불교계 공약사항에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대불교계 공약사항을 △편양적 종교정책 배제 △사찰주변 환경 보호 △국립공원 입장료 점차 폐지 △문화재에 대한 국민 교육 강화 △세계적인 불교성지 조성 등 5개로 정리했다. 국민회의도 △특정종교 편향행위 근절 △사찰환경 보존 △불교문화 보존 육성 등 3개 부문에 대한 10가지의 공약사항을 밝히고 있다. 국민신당은 △농지법 개정 △문화재 보호 △사찰환경 보호 △통일후의 북한 문화재 보존대책 강구 △문화유산 보존대책 강구 △학교교육에서 우리문화재의 중요성 강조등을 중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본지의 설문에서 현정부가 92년 대선때 내놓은 공약사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김대중 후보는 "공정한 종교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인제 후보도 "대통령의 개인적 종교신앙이 종교정책에 편파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문화예산이 0.62%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 후보들은 "집권하면 1%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대불교계 공약을 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 송광사 방장에 보성스님

**부방장에 현호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제5대 방장에 원로의원 법일 보성대종사(梵日 普成, 송광사 율주)가 추대됐다.

송광사 임의는 14일 정족년 동안거를 맞아 열린 일화에서 만장일치로 보성스님을 방장에, 현호스님(법연사 주지)을 부방장에 추대했다. 이로써 송광사는 방장 일각스님 열만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방장을 추대했으며 처음으로 부방장제를 도입했다.

보성스님은 내년 3월 조계종 총회에서 추대인준되며, 1월 보조선님 기일에 맞춘 '3월불사'에서 추대의식을 갖게된다.

◎보성스님  
◎현호스님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생애인

할 때 이웃집 친구를 멀리하고 괴롭히기까지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도 회회하는 마음이다.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아버님께서 숙환으로 고생하시다 끝내 돌아가셨다.

알량한 공부담당시고 아버님을 돌보아드리지 못한 일, 불효한 일들은 참회하고 또

**정 천 구**

**“나 중심으로 살지않았나...”**

참회해도 모자란 것이다.

그즈음 나는 거룩한 스승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다.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터이지만 마음으로 발심을 한 것은 그 때부터였다. <금강경>을 묵상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후 10년 쯤 지나 선생님께서 일반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언가 배우려는 욕심만 강하게 낸 것 같고 스승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죄만 지었다. 이것을 진정으로 참회한다.

“주는 마음으로 살라, 미안한 일을 적게하라,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대하라”라는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께 참회할 일 뿐이다. “백겁으로 지은 죄도 한 생각으로 풀록 소멸된다”는 말씀에 한가닥 희망을 갖지만 나의 경우는 금생에 지은 죄만도 땅 두께보다 두꺼운 것 같다.

<영산국제산업대 총장>



### 현존유일 고려천수관음상 공개

고려시대 것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이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 국립 기예박물관 수장고에서 케이블TV Q채널이 확인한 천수관음상은 높이 90cm 폭 90cm 무게 약60kg, 청동에 금을 입혔으며 13~14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이 그릴과 조각으로 조성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조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물관측 기록에 따르면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프랑스 민속학자 사를 바라가 1888년 경북 성주 동량사에서 가져간 것이다.<관련기사 24면>

수행한담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12·13면

### 자연공원법 개정

**17일 국회통과... 문화재관리지원 법제화**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일부 부를 공원에 사할 문화재의 기여도에 따라 관리 보수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제33조 '부담금의 귀속 등'을 규정하는 조항 3항에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

자연공원법의 개정은 10월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분리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합의사항 제2항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할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공명선거촉구 성명 중단협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10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에서 개최됐던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결산했다.

종단협은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과 공동명의로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성명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공명선거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전반의 자정과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는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찬불가 부르며 자비 실천 23면

###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창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하나의 한국불교 초창지 제주도에 대한 단원의 막을 내리게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천사, 제주 유형문화재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듯”**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외**

■ 참가 안내

- 출 발: 12월 13일(토) 오후1시·김포공항
- 장 소: 법화사지·관음사·약천사·불탑사·목석원·한라공원·산방산·수목원·용두암 등
- 회 비: 135,000원
- 인 내: 김창화(제주대 겸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무암무역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암약동

새연재 '깨달음 가는 올바른 순서' 14면

**“문화유산은 과거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현재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전통의 멋**

본 작품에는 옛 선조의智慧和氣가 스며있으며 외적으로는 전통의 멋과 생활공간의 우아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며 내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지손의 번영을 지켜드립니다.

**POINT**

- 모든 문화유산은 국가 차별이기는 지금 지역 문화유산에서는 해당지역으로 한정된 특유성을 공백 됩니다.
- 황금거북선 W500,000 → W250,000
- 예일계 종 W800,000 → W400,000
- 금관송 금관 W500,000 → W250,000

■ 황금 거북선 (國寶 第29號)  
대한제국의 전통기법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조화시킨 명품으로서 차종시 물려 파지는 웅장한 소리는 우리민족의 슬픔을 담고 있으며, 그 예은 또한 아름다우며 신비스럽습니다.

■ 예일계 종 (國寶 第29號)  
삼한시대의 전통기법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조화시킨 명품으로서 차종시 물려 파지는 웅장한 소리는 우리민족의 슬픔을 담고 있으며, 그 예은 또한 아름다우며 신비스럽습니다.

■ 금관송 금관 (國寶 第87號)  
우리나라의 금관송 가장 대표적인 금관으로서, 내외국의 화려함은 그시대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징시켜 주며 종교화와 상제화 또한 세계 어느나라 금관 못지않게 우수하여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새질 향동 ●규격 410×235×45m/m  
■ 기술자본: 서울대학교 기술생산연구소  
■ 운영자본: 서울대학교 박물관, 전·국립중앙 박물관

■ 작 기 원 공식 작품내역  
▶ 1985년, 보신각 새동 ▶ 1986년, 수현시인의 종 ▶ 1988년, 전주시인의 종  
▶ 1993년, 예식도 '93 대종 ▶ 1993년, 창현시인의 종

■ 새질 ●종, 순금도금(99.9%), 규격 317×175×235m/m

■ 새질 ●종, 순금도금(99.9%), 규격 200×200×450m/m

100여개의 부속품을 꾸고 또 다듬어 섬세한 구조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 만경된 작품 한점 한점에 소경변화를 부여하였습니다.